

Morning Meeting Brief

산업 및 종목 분석

[POST 코로나19] PART1: New Challenge

- 코로나로 경제의 내재적인 기반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의 훼손이 나타났을 여지가 큼
- 매크로 환경은 V자형보다는 회복 기간이나 강도 자체가 제한적인 U자형 경로를 예상
- 반면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정책들로 저성장 우려보다 회복 및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부각될 것
- 저금리로 채권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 유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호황을 이어가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단기 실적 감소, 자산유형별 투자 수요의 변화로 변곡점에 직면할 것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OST 코로나19] PART2: Reshoring

-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리쇼어링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자동화 수요를 촉발하고 경제 블록화를 진행시킬 것
- 의류/신발제조(OEM):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로 의류 및 신발 제품의 생산지로서 중국 매력도 급격히 하락, 베트남 매력 부각
- 코로나19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생산거점 이동, 부품 공급망 다변화 수요 증가. 리쇼어링 과정에서 나타날 생산지역 블록화는 혁신기업 경쟁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며 비용상승분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
-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최대고객인 중국과 미국을 지원하고자 Reshoring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팩토리 등 공장 시스템 자동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OST 코로나19] PART3: Corona THRU

- 코로나19가 지나간(THRU) 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를 네 가지 주제로 정리
- Corona THRU: Trauma, Home, Remote, lUxury
- Trauma: 코로나19 과정에서 등장한 우울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작용(건강, 홈무비, 비공유, 컨슈머 헬스 등)
- Home: 코로나를 계기로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들이 예상(혼밥/혼술, 홈콕, 온라인쇼핑, 여가생활 등)
- Remote: 많은 활동들이 Remote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온라인교육, 재택근무, 원격진료, 비대면 금융, SNS, 로봇, 5G, 자율주행 등)
- lUxury: 위축된 외부활동에 대한 불만을 lUxury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예상(호캉스, VIP, 골프, 미용, 성형, 명품 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OST

코로나 19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art I. New Challenge

경제 환경 변화와 자산시장 영향

- 코로나19(COVID-19)가 향후 글로벌 경제나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종래에 경험했던 위기들과는 규모나 기간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한순간에 멈췄고 무차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경기사이클의 추세마저 바뀌놓은 코로나로 경제의 내재적인 기반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의 훼손이 나타났을 여지가 크다.
- 매크로 환경은 V자형보다는 회복 기간이나 강도 자체가 제한적인 U자형 경로를 예상한다. 또 회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전환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 모멘텀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올해 부진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정상화 과정을 통해 높은 성장률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반등 모멘텀이 추가로 더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 반면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정책들로 저성장 우려보다 회복 및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맞물리며 금융시장은 Asset Inflation 국면에 돌입하고, 당분간(1~2년) 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차별적인 수요와 성장동력이 유효한 산업만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적인 펀더멘털 모멘텀과 IT 비중을 감안할 때 KOSPI를 가장 주목한다.
-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의 안정과 적정 수준의 물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실질금리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금리 하락국면에서 관심을 높여야 할 자산은 금과 은이다. 저금리로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유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비대면활동 증가,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렵고, 공급도 NOPEC의 원유생산 증대 등으로 부담스럽다. 저유가에도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전세계 국가들의 정책 지원과 경제성 강화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호황을 이어가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단기 실적 감소, 자산유형별 투자 수요의 변화로 변곡점에 직면할 것이다. Core 자산 선호가 가속화되며, 프라임오피스와 라스트마일 물류 센터 등 핵심 자산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테일과 호텔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며,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전망이다.

POST

코로나 19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art II. Reshoring

기업의 공급망 및 전략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IMF는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 전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11%로 수정했다. 각 국 정부의 지역간 이동 봉쇄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글로벌 공급망 뿐 아니라 GVC(Global Value Chain)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글로벌 Top 5000 MNEs 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은 -30% 하향 조정됐고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 조정폭이 더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직접투자(FDI)도 30~40%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리쇼어링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자동화 수요를 촉발하고 경제 블록화를 진행시킬 것이다.
- 의류/신발제조(OEM):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팬데믹 영향으로 의류 및 신발 제품의 생산지로서 중국의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베트남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미 경공업 제품의 생산국으로서 패권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중국산 의류와 신발 품목의 미국의 수입액은 각각 8%, 4% 감소했고, 2020년 1분기 감소폭은 각각 42%, 32%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공급망의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베트남으로 설비를 확충한 국내 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 후 찾아올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끝낸 상태다
- 산업재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요 충격에 설비투자가 줄어든다. 최근 일본 공작기계 수주는 -48.3%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어도 설비투자는 제품 수요 회복에 후행할 것이다. 공급망 충격을 겪은 기업들은 생산거점의 이동이나 부품 공급선 다변화를 꾀할 것이며 이는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생산지역의 블록화로 제품의 차별성이 올라가고 제품가격도 상승하며 혁신 기업들의 경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은 리쇼어링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최대고객인 중국과 미국을 지원하고자 Reshoring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보유한 메모리 전공정 팹(시안, 우시) 라인 확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미국 내 위치한 오스틴 비메모리 전공정 라인을 증설할 전망이다. 후공정의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은 생산 지역을 다각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팩토리 등 공장 시스템 자동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팩토리는 생산라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 혹은 디지털화 된 공장을 뜻한다. 다만, 스마트팩토리로 과도한 무인화를 추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공정에 부분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POST

코로나 19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art III. Corona THRU

Corona THRU(Trauma, Home, Remote, lUxury)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초중고 등교, 프라야구 개막 등 서서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과거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우리는 상당 기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 이번 자료에서는, 코로나19가 지나간(THRU) 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를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해보았다.
- Corona THRU: Trauma, Home, Remote, lUxury
- **Trauma:**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현상이 등장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 한 최악의 바이러스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우울증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어떻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과정에서 겪었던 우울증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것이다.
Keyword: 건강, 홈무비, 비공유, 칸슈머 헬스 등
- **Home:** Trauma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증상이 의심될 경우 자발적 자기격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증상과 무관하게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들이 예상된다.
Keyword: 혼밥/혼술, 홈콕, 온라인쇼핑, 여가생활 등
- **Remote:** Trauma로 인해 Home에서의 생활이 많아지지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Remote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Keyword: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원격진료, 비대면 금융, SNS, 로봇, 5G, 자율주행 등
- **lUxury:** 위축된 외부활동에 대한 불만을 lUxury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지난 5월초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곳은 골프장, 명품매장, 호텔 등이다. 오랜만에 맞이한 연휴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자주 목격되는 모습일 것으로 전망한다.
Keyword: 호캉스, VIP, 골프, 미용, 성형, 명품 등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